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83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9,23-2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9,23-26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제9기 청년 도보 성지 순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신학생 때 한 번 참여를 했었고 그 때 도보를 통해서 얻었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기꺼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마음 한 편으로는 사제의 해를 맞이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갈매뚝 성지를 시작으로 홍주읍성성지, 해미성지, 신리성지, 합덕성당, 솔뫼성지, 공세리성당, 요당리성지, 남양성모성지, 수원성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교구청으로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에 도보성지순례를 위해서 8박9일이라는 시간을 내서 온 많은 청년들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봉사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좋아보였습니다. 도보 기간 중에 하루를 빼고는 계속 비가 내렸고 심지어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를 뚫고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은 빗물에 불어서 물집도 잡히고 오랜만에 오래 걷다가 보니 많은 청년들이 점점 힘든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손에 목주를 쥐고 주님께 내어맡기면서 이겨내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도보 성지 순례의 주제인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30,2).”라는 말씀처럼 한걸음, 한걸음 마다 마음을 담고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봉헌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는 청년들의 모습과 그 소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들으실 소리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도보순례의 여정을 하는 그 안에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이 도보성지순례처럼 언제나 제 삶의 여정 안에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맡기고 기도를 통해 맡기고 살 수 있도록 청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생각되던 기도도 마음껏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지라는 곳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 하는 물음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계신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자리가 바로 또 다른 성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는 곳,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리가 우리 삶의 성지라고 느껴졌습니다. 걸어서 성지를 순례하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을 언젠가 만나는 그 날까지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모두 내 삶의 성지입니다. 때론 힘든 일에 걸음을 걷기가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어도 다시금 주님께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하는 주님을 느끼면서 일어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내 삶에서 거쳤던 거룩한 곳 바로 성지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역시 삶 안에서 주님을 느끼고 온갖 유혹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늘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갔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맡기며 주어진 하루, 하루를 모두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유혹이 다가와서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심한 아픔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느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교성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삶의 도보 성지 순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주님을 느끼고 우리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 우리 삶의 성지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원교구 9월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에스테르기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에스테르기

저자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에 익숙한 유대인.

집필 연대

히브리어 부분은 기원전 3세기경, 그리스어 부분은 기원전 2세기 중엽.

집필 동기

이 책은 역사성은 매우 미약하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책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어 첨가 부분은 히브리어 에스테르기에는 없는 종교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에스테르기에서는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의 용감한 활약만이 강조 되었는데 비해 그리스어 첨가 부분에서는 하느님의 섭리가 보다 강조됩니다. 그, 유대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에스테르의 용기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대한 에스테르의 신뢰심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된 에스테르기를 히브리어 에스테르기 중간 중간에 삽입시켜 내용을 연결하여 읽어야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주요 내용

히브리어 에스테르기에는 모르도카이가 세운 치밀한 계획과 에스테르의 용기로 유대 민족이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만, 하느님의 개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에스테르기는 하느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의 기도(13-14장)에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어로 된 에스테르기는 히브리어로 된 에스테르기에 결여된 종교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공지사항

- * 본당 성경공부(하느님 말씀)에 적극 참여 합시다.
- * 9/20일 본당의날 행사(부제서품식)를 위해 많은 기도를 바칩시다.
- * 예비자 입교식에 많은 사람을 초대 합시다.(9/27일)

마르 10,46-5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때가 많습니다..
더 깊게, 더 넓게, 더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려는 간절한 열망과 신앙이
나에겐 얼마큼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저서 원정수
작곡 현정수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line of the hymn. The melody is written on a treble clef staf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lyrics are: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 라.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D, A, Bm, G, Em, A7.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line of the hymn. The melody continues on a treble clef staff. The lyrics are: 우리 외로운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아.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G, D, Em, F7, A7.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line of the hymn. The melody continues on a treble clef staff. The lyrics are: 중-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두에 게.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B, A, Bm, G, Em, A7.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line of the hymn. The melody continues on a treble clef staff. The lyrics are: 마 음 모-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져 천국 으 로.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G, B, Em, A7, D, D7.

Musical notation for the fifth line of the hymn. The melody continues on a treble clef staff. The lyrics are: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G, D, Em, A7.

Musical notation for the sixth line of the hymn. The melody continues on a treble clef staff. The lyrics are: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Chords indicated below the staff are G, D,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